



송정역시장 사업비 “부당 집행” 의혹



김준형
기동취재본부장

‘1913 송정역시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성공 사례로 꼽혔으나, 최근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사업비 부당 집행과 공공영 제작 실패 등의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1.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실효성 논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1913 송정역시장의 경우, 하드웨어(시설) 중심의 투자가 실질적인 매출 증

대나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시설 개보수나 조형물 설치 등 겉모습을 꾸미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쓰였지만, 정작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점포 공실률은 높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일회성 행사 위주 축제나 홍보 이벤트 등 일회성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어, 사업 종료후 상권이 다시 침체되는 ‘지속 가능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다.

2. 공공영 제작 및 운영 실패 사례
가장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히는 것이 자체 공공배달앱(또는 상권 활성화 앱) 개발이다.

실패 원인: 대형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과의 경쟁력 확보 실패, 사용자 편의성 저하, 가맹점 관리 부족 등이 겹치며 이용률이 처참한 수준에 머물렀다.

매몰 비용: 수억 원의 개발비와 유지보수비가 투입되었음에도 실제 주문 건수가



거의 없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운영 중단이나 폐기 수순을 밟으며 전형적인 행정 실패 사례로 남았다.

3. 사업비 부당 집행 및 비리 의혹
일부 감사 결과와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투명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부적절한 수의계약: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산 관리 소홀: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영수증 처리가 미비하거나,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곳에 예산이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용역 보고서 부실: 상권 분석이나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발주한 고가의 용역 결과물이 기존 민간 영역에 자료를 짜깁기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독자 투고

겨울철 전기 사용, 안전이 따뜻함을 지켜줍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기히터와 전기장판, 열선 등 전기난방기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방용품은 겨울철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 전기화재는 대부분 일상 속 작은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래 사용한 전기제품이나 전선 상태를 미처 살피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용 전 외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상이 느껴질 때는 잠시 사용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난방기기를 장시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전원을 꺼 주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전기장판 역시 올바른 사용이 중요합니다. 점진 상태로 사용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면 내부 열선이 손상될 수 있어 주

의가 필요합니다. 보관할 때는 말아서 두고, 온도는 생활에 불편하지 않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보다 안전한 사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화재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전열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의 멀티탭에 많은 제품을

연결하면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력 소모가 큰 기기는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류 차단 기능이 있는 멀티탭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난방기기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사용하고, 평소와 다른 점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화재 위험은 충분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용겨울은 따뜻함과 함께 안전도 함께 지켜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상훈

오늘의 운세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음력 12월 4일)

<p>43년생 무모한 용기 수업을 내야 한다. 60년생 난감하고 피곤한 부탁이 들려온다. 72년생 소소한 일상에 귀찮음 느껴져서 84년생 깊은 뜻이 담긴 선물 받는다. 96년생 무리하는 소리 음악으로 돌아본다.</p>	<p>49년생 정춘 기쁨으로 불기능에 도전하자. 61년생 계산은 정확히 주고 받아야 한다. 73년생 만족스러운 거래 도장이 찍힌다. 85년생 냉정한 승부사반드시 이겨내자. 97년생 경직하 울림된 대가를 받아본다.</p>	<p>50년생 분명하다 싶어도 고민을 더해보자. 62년생 평가 불인행은 시간 에 의지하지. 74년생 말보다는 행동 바르게 움직이자. 86년생 나쁜거나 좋거나 한 우물을 파보자. 98년생 날카로운 지적을 아프게 받아내자.</p>
<p>51년생 불필요한 잔치 건너뛰고 생략하자. 63년생 대단한 계획에 첫 삽을 뜬다. 75년생 생각을 멈추는 단순함을 가져보자. 87년생 달고 싶은 스승 흉내도 내보자. 99년생 노력과 열정을 경성을 향해가자.</p>	<p>52년생 금의환향 축하 박수가 쏟아진다. 64년생 흔들리는 유혹에 중심을 잡아야. 76년생 서로가 다른 처지 이해를 더해보자. 88년생 기보지 않은 길도 뻑뻑하게 가야 한다. 100년생 최고가 지바위에 상처가 남겨진다.</p>	<p>53년생 새로운 변화에 용기 발휘 해보자. 65년생 나라 이야기들은 척만척 해보자. 77년생 열정했던 분위기 활기 채워준다. 89년생 누구도 변명 초라함만 더해진다. 101년생 남다른 인연과 사랑을 속삭여보자.</p>
<p>54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남작 열드러지. 66년생 하늘을 날 것 같은 소식을 들어보자. 78년생 외롭고 힘들었던 부진을 털어내자. 90년생 풀죽어 들어섰던 꿈을 다시 하자. 102년생 실패의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자.</p>	<p>55년생 재미와 감동 주는 걸음을 걸어보자. 67년생 든든한 지원군이 곁을 지켜준다. 79년생 흥겨운 웃음이 담장을 넘어간다. 91년생 믿고 기댈 수 있는 친구를 찾아보자. 103년생 넉넉한 차이로 경쟁에서 이겨내자.</p>	<p>56년생 세상을 가진 듯한 표정이 그려진다. 68년생 제대로 호사 명실당실 충족 추자. 80년생 답답했던 살림살이가 트여진다. 92년생 눈물샘 건드리는 감동이 밀려온다. 104년생 부끄러움은 고리표가 떨어진다.</p>
<p>57년생 속에 있던 불만은 밖으로 꺼내보자. 69년생 식이었던 가슴이 뜨겁게 달구진다. 81년생 거짓이 아닐까, 의심 명을 깨야 한다. 93년생 어려운 부탁에 고개가 숙여진다. 105년생 겸손과 양화로 불이익을 막아내자.</p>	<p>58년생 웃겨하는 농담에 장단을 맞춰주자. 70년생 잔치날 배탈 난다. 조심심을 더해보자. 82년생 위기에서 기쁨으로 반전에 성공한다. 94년생 약해 지는 마음 거짓이 다가간다. 106년생 책에 없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p>	<p>59년생 조건 있는 거래 꼼꼼히 살펴보자. 71년생 달라진 위상에 근심만 기억하자. 83년생 공한 쪽 나누는 이웃이 되어주자. 95년생 끈기(와)오기로 반대를 넘어보자. 107년생 안제 오나 기다린 재인을 돌아보자.</p>

기고

우리 집을 지키는 첫 번째 안전장치 주택용 소방시설

최근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여전히 큰 인명·재산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는 다소 감소했지만, 주거시설 화재는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며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거공간은 생활과 밀접해 작은 부주의가 큰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화재는 ‘초기 1~2분’이 생사를 나누는 만큼, 경보와 초기진압이 실제 피해를 좌우합니다. 그러나 주택 화재 피해 조사 결과 상당수 가정에서 연기감지기나 소화기 등 기본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화재를 늦게 발견해 대피가 지연되거나, 작은 불씨를 소화하기 한 대로 충분히 진압할 수 있었음에도 대응하지 못해 큰 화재로 이어진 사례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결코 복잡하거나 비싼 장비가 아닙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가 발생하는 즉시 경보음을 울려 가족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며, ABC형 분말소화기 한 대만 있어도 초기 불길은 충분히 진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초 소방시설의 설치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명피해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넘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줍니다.

전남은 고령 인구나 농촌형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화재 대응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일수록 화재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스스로 초기 행동을 할 수 있는 장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전기난방기구 사용 증가, 노후 배선, 건조한 날씨 등 화재 요인이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그 위험이 더 커집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월 1회 정도 작동 여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기구 주변 가연물 정리,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등 생활 속 작은 실천도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진소방서는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화재예방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집에 감지기와 소화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작은 준비가 큰 생명을 살립니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상훈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 송 암	발행인 · 대표이사 정 길 화
편집인 진 광 춘	편집국 장 박 선 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신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 스> (062) 528-4566
회 장 실 (내선) 210	편 집 국 교 2001
임 원 실 (내선) 207	정 경 부 교 2003
총 무 국 교 2002	사 회 부 교 2004
광 고 국 교 2006	사 업 국 교 2007

인쇄 (주) 대 한 칼라 본 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47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